

People & Life

21년만에 고향 돌아온

백운기

KBS광주방송총국장



"21년 만에 다시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쁘지만 한편으론 책임감을 느낍니다. KBS광주방송총국이 국민의 방송으로, 지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기(54) KBS광주방송총국장이 지난 14일 취임식을 갖고 15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1985년 KBS목포방송국 사회부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백 총국장의 취임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이 지역 출신의 KBS광주방송총국장들은 많았지만 광주에서 공부하고 기자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백 총국장이 처음이다.

이례적인 취임만큼 첫날 행보도 남달랐다. 백 총국장은 이날 목포방송, 여수방송센터 국장 및 간부들과 함께 가장 먼저 광주 5·18민

주묘역을 찾았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80년대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고,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주를 떠나서도 항상 가슴속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고 있었고 한시도 '광주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5·18묘역을 찾아 5월 영령 앞에 선배, 동료 그리고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언론인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KBS광주방송 사회부 기자를 거쳐 KBS 보도국 정치부 기자, 공개수배 사건 25시 MC, 9시뉴스 주말앵커, 방곡 특파원 등을 거친 그는 그 가운데서도 광주에서의 기자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특히 1988년 도청에서 조상만 열사 노제를 취재하고 망월동으로 향하던 중 KBS 기자라는

이유로 군중 속에 휩싸여 구타를 당하고 취재 차량이 불타던 경험은 그의 가슴속에 교훈으로 남아 있다.

"당시 기자로서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생각을 항상 가슴속에 품어왔습니다."

백 총국장은 앞으로 광주에 문화의 씨를 뿌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학 시절 우다방 인근에서 책을 보고, 클래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예향 광주라고 하지만 20~30년 전의 진짜 광주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한창이지만 그 안에 담을 문화 콘텐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화를 찾아

가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힘이 듭니다. 시민들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최근 KBS가 정권에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KBS가 비판 받아야 하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그동안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이 정부나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줬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NHK와 BBC 등의 국외 공영방송과 비교를 많이 하지만 두 방송사처럼 재원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정치권에서의 완전한 독립은 힘들다는 것이 예향 광주라고 하지만 20~30년 전의 진짜 광주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한창이지만 그 안에 담을 문화 콘텐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화를 찾아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아생화

강아지 꼬리처럼 구부러진 흰색 꽃차례



<102> 까치수염 까치수염은 열초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전국 산과 들에 있는 숲속 그늘진 곳에서 자란다.

꼬리처럼 길게 늘어선 꽃차례는 아래쪽에 위쪽으로 차례 차례 꽃을 피운다. 흰색 꽃이 무수히 달린 꽃차례가 강아지 꼬리처럼 구부러져 있는 모습 때문에 '개꼬리풀' 또는 '남미화(狼尾花)로도 불린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연평란 中중영사 건국 62주년 경축행사



연평란(關鳳蘭) 주 광주 중국 총영사는 16일 오후 6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2주년 경축 리셉션을 갖는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스타들 애장품 기부



한류스타 배용준(사진)과 전지현, 조인성, 손예진, 비 등이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기 위해 물었다.

엔터테인먼트사 브롬트리리는 15일 아프리카 빈민촌 어린이 후원 프로젝트인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배용준, 박진영, 전지현, 비, 조인성, 손예진, 장혁, 김현중, 고수, 김지환, 이민기, 다니엘 헤니, 송중기, 2PM, 미쓰에이 등이 애장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 특집 전방문화상품 플래시 내 자벌레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는 스타들의 애장품 경매와 함께 아프리카 아이들의 작품과 전문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각종 공연이 펼쳐진다. 이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후원될 예정이다.

임재범 美 UC버클리서 특강



가수 임재범이 미국 서부의 명문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UC버클리)에서 특강한다.

15일 UC버클리 한인학생회에 따르면 임재범은 오는 20일 오후 4시(현지시간) 캠퍼스 내 플라 볼룸에서 한국 음악을 주제로 무료 강연과 공연을 연다. 3시간가량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MBC '우리들의 일밤' 새 코너 '바람에 실려' 촬영의 일환으로 한인학생회가 함께 준비했다. 오는 25일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시민과 함께 우다방 시절의 광주문화 찾겠다"

팔손 노모·장모 부양 김대옥씨 호도회 이사장상

호행자 23명 효행학생 263명 표창

팔손 노모와 장모를 함께 모시고 있는 김대옥(62·광주시 남구 효덕동)씨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한 송덕고 박재휘(17·1년)군이 각각 한국효도회 이사장상, 중앙회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광주지부(회장 이용규)는 15일 이들을 비롯한 호행자 23명, 효행학생 263명을 한국효도회 중앙회장상·광주시장

상·광주시의회 의장상, 한국효도회 광주지부장상 등 주요 표창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노모(87)를 모시고 있음에도 질병을 앓고 있는 장모(85)를 1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극진히 보살피고 있다. 그는 지방인 당뇨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장모님과 항상 병원에 동행하는 등 건강을 직접 챙기고 있다.

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투병하는 동안 간병인을 들이지 않고 직접 대소변을 처리하는 등 효를 실천했다.

박군은 지난 7월 간식 만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최후 통첩을 받고 기꺼이 수술대에 올라 꺼져가던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한국효도회 중앙회장상과 광주시장상을 함께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10월2일 광주 빛



김대옥



박재휘

고을 문화관에서 열리는 노인의 달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용규 한국효도회 광주지부회장은 "효(孝) 문화가 실종되는 세대에서 이들의 효행이 부모와 가정의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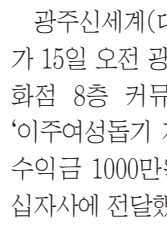
광주 북구 탄소은행 운영 3년연속 '우수'



광주 북구(구청장 송광운·사진)가 광주 주광으로 실시한 '2011 탄소은행 운영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장과 함께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동(洞) 주민센터 및 자연생태와 연계해 공동주택을 방문하는 등 탄소은행 홍보와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전개해 시 전체의 30%인 6만1000여 세대를 탄소은행에 가입시켜 온실가스 줄이기에 앞장서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신세계 바자회 수익금 적십자사 전달



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가 15일 오전 광주신세계 백화점 8층 커뮤니티룸에서 '이주여성들이 자신 바자회' 수익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이주여성들이 바자회 수익금은 10월 말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차이에 힘들이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친정 방문 지원금으로 활용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문協 NIE 워크북 대상에 김판준·홍지은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와 전국대학구조협회(회장 최학래)는 NIE(신문활용교육) 워크북인 '재난과 나눔 패스포트'의 부문별 대상 수상자로 김판준(대구 강북초 5년) 학생과 홍지은(인천 국제고 2년) 학생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초등부 대상 수상자인 김군은 자연재해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 조사와 창의적인 사고력이 돋보였다. 중등부 대상 수상자인 홍양은 직접 나눔을 실천하고 실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물 완수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에는 김의정(구미 형곡초 6년), 최윤정(웅인 이현중 3년) 학생이, 우수상에는 박기나(서울 선곡초 4년), 객체현(서울 한양초 5년), 권민재(청주 원평중 2년), 임하영(서울 무학중 2년)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김경민기자 kki@



김판준



홍지은

시상식과 우수 작품 전시회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2011 대한민국 NIE 대회'에서 열린다.

워크북 '재난과 나눔 패스포트'는 학생들의 재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과 나눔·봉사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재난 관련 활동과제물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신문 지면에서 정보를 찾아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김경민기자 kki@

여수소방서 박윤기씨 "여섯째 딸 태어났어요"

저출산이 국가·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 여섯째를 낳은 가정이었어 화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박윤기(42·소호동)씨는 지난 달 12일 여섯 번째 딸인 정은이를 출산했다.

박씨는 수현(남·11), 수빈(남·9), 심원(여·7), 원진(여·4), 수찬(남·2)이 등 5자녀를 두고 있으며, 정은이의 출산으로 3남3녀의 아빠가 됐다.

여수시는 이날 박씨의 시정 회의실에서 여섯째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1000



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산모·신생아 도무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섯째를 분만한 제일병원에서는 평생 무료진료권, 아기사진 전문스튜디오 티아라에서는 32인치 가족사진 촬영권, 여천 어울 모터리클럽에서는 쌀 40kg을 지원하는 등 다자녀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기도 이어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건강관리協 '심장질환 예방과 관리' 강의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이균익)는 지난 15일 협회 보건교육관에서 조선대병원 순환기내과 고영엽 교수를 초청, '심장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강의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박종범(영산그룹 회장)·송호숙씨 장남 건영(영산그룹 기획조정실) 안중삼(삼일엔지니어 회장)·신속씨 장녀 지은양=17일(토) 낮 12시30분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움.

▲김선만(롯데케미칼 영광조선 소부장)·박종임씨 장남 지훈군 전광덕·박정규씨 장녀 민영양=24일(토) 오전 11시 오페라하우스 8층 그랜드볼룸. 피로연=16일(금) 오후 5시 30분 프라도호텔 3층 크리스탈홀.

▲염태홍·이영희씨 장남 도건군 김양준(우투투어 대표)·이재훈씨 차녀 의늘양=25일(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피로연=17일(토) 오후 6시 광주 프라도 호

텔 2층 다이아몬드홀.

▲이명상·고은숙씨 차남 주영(삼정회계법인·공인회계사)군 김용기(광주일보 중부취재본부장)·한영숙씨 차녀 민영(예금보험공사·공인회계사)양=24일(토)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1층. 피로연=21일(수)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

동창·동문회

▲목포홍일고 재광·북구동문회(회장 박종일) 9월 모임=16일(금) 오후 7시 해오름김식당 062-265-0248. 총무 김내근 011-607-1481.

알림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날 기념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학생

대상(초·중·고) 포스터 및 회화(그림) 공모=17일(토) 까지, 시상식은 광주광역시장상, 광주광역시교육감 상 등 다수.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성 건강복지과담당 광주생명의전화 062-232-9192.

▲해법영어 게임교실 학부모 설명회=국가영어능력평가(NEH) 대비와 자녀 맞춤형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29일(목)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게임동 금호아파트 후문 앞. 062-526-0505.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거점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인권,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가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충령산 지킴이 회원=장성 축령산을 공유하고 편백의 숲을 지키실 40~50대 회원 011-646-357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사회복

부음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故 방대석 님(남/88세) 子/子婦: 방태열, 태현 / 임승희 태신 / 최영주 未亡人: 박영례 호실201호 장지: 화순동복 발인: 9월 16일 연락처: 227-4381	故 이양순 님(여/77세) 子/子婦: 차희석/이만희 우석/오영미 女/婿: 차행숙/윤중하, 혜숙/서광렬 호실301호 장지: 임실호곡원 발인: 9월 16일 연락처: 227-4382
故 김재식 님(남/85세) 子/子婦: 김보영/정미자 女/婿: 김형만/박경만, 황숙/김재학, 황미/박현수, 임희/이학래 호실401호 장지: 강진도암 발인: 9월 17일 연락처: 227-4383	故 박말남 님(여/90세) 子/子婦: 유경태/유영연, 박성리/손진, 박고/인숙 女/婿: 심정/이중수, 현/노기영, 강/박영규, 진 발인: 9월 18일 09시00분 장지: 운암동 선영 연락처: 250-4413

마음까지 편안하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오준중씨 별세 송열·미연·미진 인 16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씨 부친상=발인 17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보순씨 별세 김용기·용열·연예·영애·영남·영숙씨 모친상=발

謹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故 신복용(파스칼) 님(남/80세) 子/子婦: 신준/성영희, 기창/강희영/주대희/김주희/김민희 女/婿: 신해원/황성정/전준공/고세, 복신/김호성 未亡人: 손정자 발인: 9월 16일 08시00분 장지: 북구 삼곡동 선영(해원락) • 연락처: 250-4412	故 박행일 님(여/75세) 子/子婦: 이명국/박주건실/구영영, 주현/인산/신업 건실/김중희, 대진/K.TI/우성희, 왕민/현대/상진/김지영 夫: 이태수 발인: 9월 17일 08시00분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10
故 최영애 님(여/91세) 子/子婦: 고민권/원진연/제아/이명/최순지 女/婿: 고희녀/백명용, 민심/장중순, 민진, 달순/이현인 발인: 9월 17일 09시00분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9	故 김순자 님(여/60세) 子/子婦: 공명준, 병지 女/婿: 공은정/박준희, 윤지 발인: 9월 17일 09시00분 장지: 전북 순창군 금과면 • 연락처: 250-4405
故 심대섭 님(남/76세) 子/子婦: 심재남/한우연/홍영, 재훈/대린/신업/홍선경 女/婿: 심정/이중수, 현/노기영, 강/박영규, 진 발인: 9월 18일 09시00분 장지: 운암동 선영 • 연락처: 250-4413	故 박말남 님(여/90세) 子/子婦: 유경태/유영연, 박성리/손진, 박고/인숙 女/婿: 심정/이중수, 현/노기영, 강/박영규, 진 발인: 9월 18일 09시00분 장지: 운암동 선영 • 연락처: 250-4407

그린 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76-17